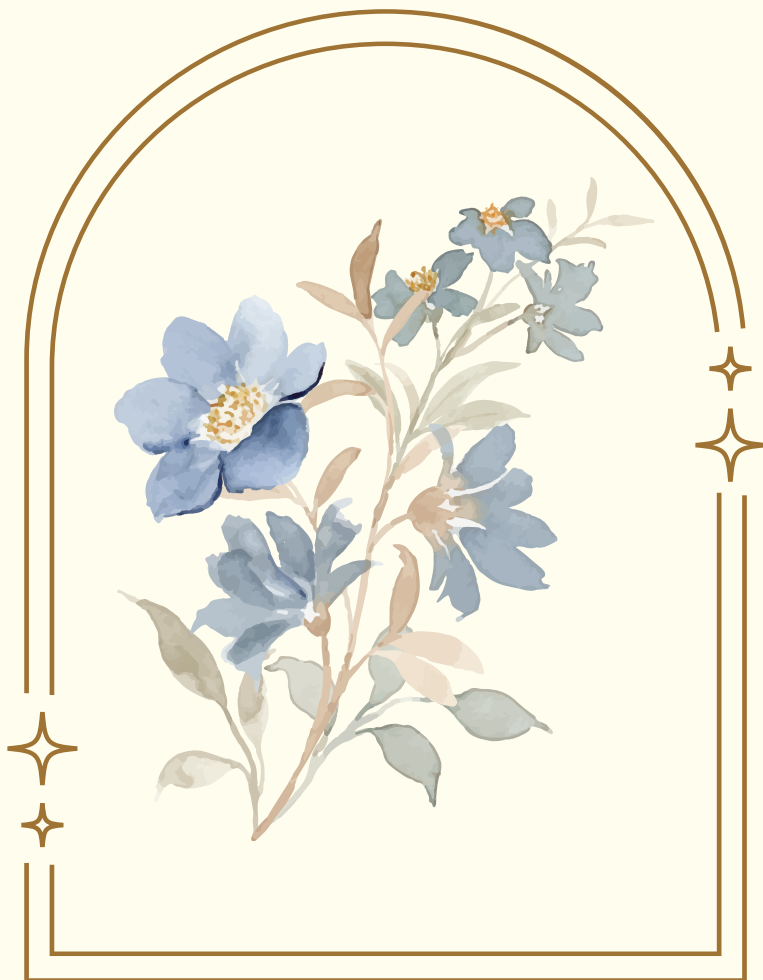


너에게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고|터-

새로운 여행을 떠날 모두를 응원하며
2024 가을과 겨울 사이

신애가.

너에게





목차



1장	신서윤과 너구리 신서윤, 최은비, 유채연, 김수아 정세윤	7
2장	제주 솔로 강상원, 이진환	40
3장	이예황 걸즈 황윤지, 김민경	56
4장	문정 지킴이 김가현, 김소린	76
5장	인하 α 메일 최영은, 박진우, 박재영, 김윤	90
6장	너에게 조신애	110





01

신서윤과 너구리

숙명여대 보드 동아리 스노홀릭의 귀여운 너구리들.
그녀들의 영원한 대장 신서윤을 필두로 하고 있다. 너구리를 닮지 않은
그녀들이 너구리라 불리는 이유로는 나머지라 부르기는 조금 그래서
혹은 김수아양 집 주변에 너구리가 돌아다녀서라는 설이 있다.



신서훈과 너구리.

그녀들의 관계성에 대해 알아보자.
21년도 겨울 스노홀릭이라는 숙명
여대 중앙동아리를 통해 만난 6명
의 모임이다. 스노홀릭은 한국대학
스노우보드 연합인 KUSBF 소속으
로 겨울 시즌인 스노우보드를 메인
으로 하는 동아리이다. 스노우보드
이외에도 비시즌 활동으로 스케이
트보드·롱보드 크루징, 웨이크보
드, 서핑, MT, 소모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raccoon
on the 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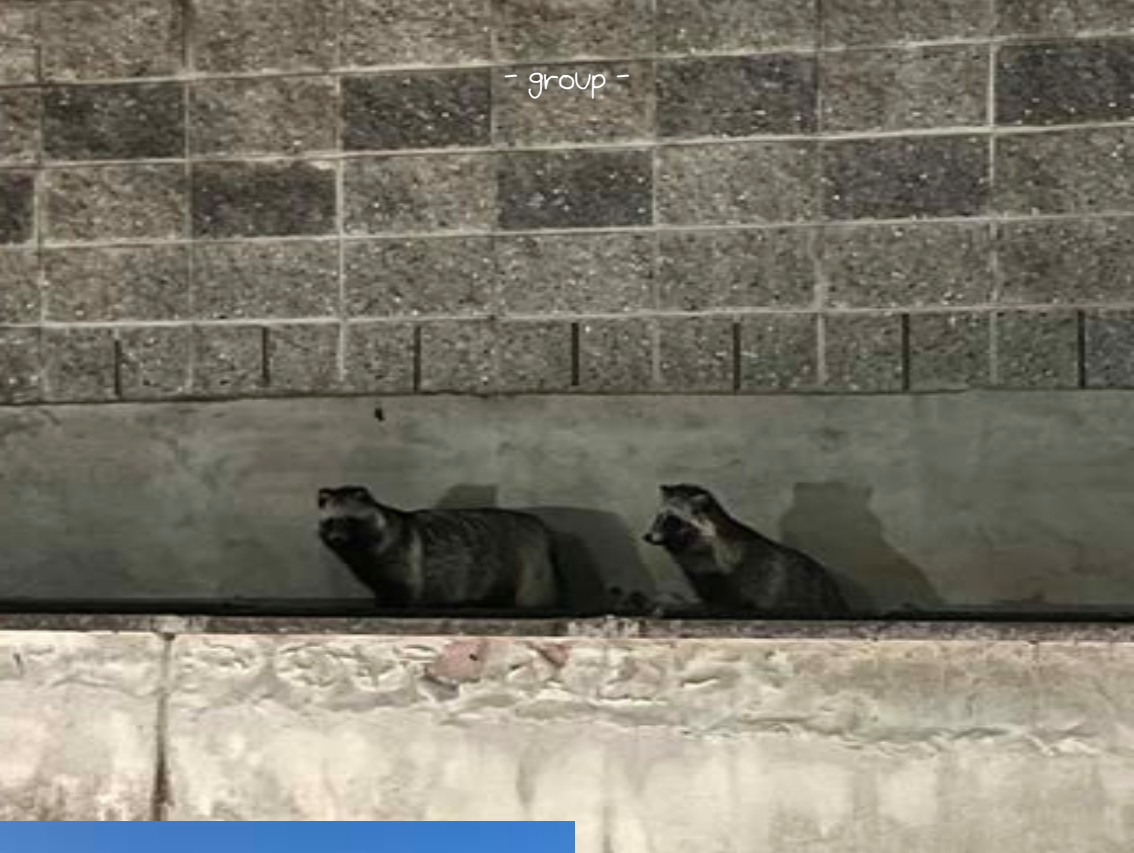


이는 22/23 임원진과 명예 임원진
이자 23/24 회장인 유채연양으로
구성되어있다. 22/23 시즌 당시

회장이자, 한국 대학 스노우보드
연맹에서 진행한 23/24 연합대회
에서 알리왕을 차지한 신서윤이 그
녀들의 영원한 대장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신서윤과 나머지는 총 6명으로 대
장 신서윤을 필두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멤버로는 영원한 부회장이
자 엄마를 담당하고 있는 최은비,
유일한 졸업생이지만 아직 학교를
떠나지 못한 유채연, 작고 소중하
지만 가장 강한 너구리이자 그들의
태양 김수아, 묘하면서도 확실한
매력을 지닌 웃음벨 정세윤, 그리
고 편집자로 구성되어 있다.

- group -



이러한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존재한다. 이전에는 ‘신서윤과 나머지’라 불리었지만, 사랑스러운 그녀들을 나머지로 칭할 수 없어 고민하던 중 김수아양의 집 주변 산책로에는 너구리가 서식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서윤과 너구리’가 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대장 너구리. KUSBF 알리왕. (전)샹크스.

“졸업언제냐고묻지마세요”

이름:

서유니

나이:

2001.04.16 4*4=16력키

전공:

(비밀입니다..)

별명:

전공묻지마세요

매력포인트:

다양한 수업 수강

대장이다

MBTI:

반 반 인 간 (enfp)

취미:

스노보드, 고양이, 자연, 서핑도 하긴 하구요.

좋아하는 것:

온갖 예쁜 거 다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에 신애를 좋아해서 임원진에 영입하게 되었는데..

독자(친구)에게 한마디:

발랄한 청춘을 담은 책이 되겠군요.)

	작가의 말
	신서훈씨의 별명은 헬로키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앙큼한
	고양이죠.
	그녀가 키우는 모하도 무척이나
	귀엽습니다. 저의 이상형이라 사진
	을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 photo -





1) 전시 : 우에다 쇼지

최근에 본 우에다 쇼지 전시회가
너무 좋았어요 사진전인데 흑백사
진이 이렇게 따뜻할수있다니요
그리고 1900년대에 이렇게나 트렌
디할수 있다니요 강추합니다.



2) 노래 :

크러쉬랑 쏘 죠지 같은 r&b랑 외
힙, 인디밴드도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맞아요.



3) 책: 미움받을 용기

인생책은 미움받을 용기.
멘탈이 안 좋거나 불안할 때 스트
레스 받을 때 읽으면 나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어요.

밤양갱

비비

떠나는 길에 니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널 안 바라보면
머리에 불이 나버린다니까’
나는 흐르려는 눈물을 참고
하려던 애길 어렵게 누르고
‘그래 미안해’라는 한 마디로
너랑 나눈 날들 마무리했었지
달디달고 달디달고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이야
떠나는 길에 니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냐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달디단 밤양갱
달디달고 달디달고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이야
상다리가 부러지고
둘이서 먹다 하나가 쓰러져버려도
나라는 사람을 몰랐던 넌
떠나가다가 돌아서서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냐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달디단 밤양갱



둘째 너구리. 최고의 어머니. 루피.

“안녕하세요.
신애 인천 와이프 켄비입니다.”

이름:

최은비

나이(생년월일):

2001.06.25

전공:

교육학부

별명:

켄비, 은바

MBTI:

T 100%의 ISTJ

매력포인트:

사회화 중이지만 할 말 다 하는 장군감

취미:

독서, 스노보드, 인디 음악 듣기, 블로그 및 일기 쓰기, 헬스(는 생존형 취미)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 보내기, 모델링팩 올리고 이북 읽기, 밤 산책하면서 노래 듣기, 각종 전자 기기, 기분 따라 향수 섞어 쓰기, 모든 초코 종류, 디저트, 디즈니, 정리 정돈, 내 사람들의 추천 작품 접하기, 드라마 보면서 유산소 하기, 여성 서사 작품, 투두리스트 및 해빗트래커 완료하기, 드라마 분석하기

독자(친구)에게 한마디:

쓰다 보니 글이 길어졌습니다. 글로 표현하면 말이 많아지는 걸 알아서 블로그를 꾸준히 써 왔던 건데, 서로 이웃 공개도 아닌 대놓고 공개되는 책으로 출판된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원래 부끄럼 타던 사람이라도 명석 깔아 주면, 뭐든 잘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준 신애에게 고맙고, 이 글을 읽게 될 여러분 모두 애정합니다. 이제 시즌이라 바쁘겠지만, 인천도 종종 들러 주세요. 얼굴 보고 싶으니까.

- photo -



- photo -



1) 노래 : SURL의 한 바퀴

오랜만에 첫 소절부터 감탄했던 곡으로, 요즘 매일 듣고 있는 노래입니다. 최근에 콘서트에서 라이브로 듣고 나서 더욱 빠졌습니다. 특히 보컬인 설호승 씨의 첫 마디가 유달리 돋보이는 곡입니다. 전 노래 들을 때 가사를 못 듣는 편이라 오직 첫 시작인 ‘하얀 종이 한 장’을 부르는 목소리와 멜로디에 매료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드라마 : 비밀의 숲

드라마 볼 때 소위 작감배라 일컫는 작가, 감독, 배우를 다 보는 편입니다. 시나리오가 좋아도 연출이 별로인 경우가 있고, 배우진이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만, 이 작품은 명성에 걸맞게 작감배 모두 완벽합니다. 수사물인데도 지루하지 않고, 어느덧 마지막회를 달리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비밀이 모여 비밀의 숲이 된다는 내용을 관통하는 제목까지도 완벽합니다. 한 가지의 단점이라면 또경영 씨의 등장이라까요. 시즌 1과 2를 연달아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1이 조금 더 재밌었습니다. 이제 ‘종거나 나쁜 동재’라는 비밀의 숲 스펀 오프 볼 차례라 설렙니다.



3) 책 : 팽쓰치의 첫사랑 낙원

작가의 자전적 요소가 녹아 들어 더 깊은 울림과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소설입니다. 어린 소녀가 겪은 고통이 상세한 묘사를 통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타인의 세계를 경험하고 지적 지평을 넓히기 위해 독서를 좋아하는데, 여성의 권리와 학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금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가만의 정서적이고 미묘한 문체를 통해 심도 있는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기에 추천합니다.

하얀 종이 한 장
책상에 올려다 놓고
한참 고민하다
커다란 달 그렸는데
괜히 쓸쓸해져
작게 그려본 전구를
키고서 가만히 앉아
아침을 기다리네
아직 달은 밝아
불 꺼진 방을 비추고
못 보던 사이에
늘어난 그림들 속엔
다들 둘러앉아
이곳을 바라보고서
손짓을 하기에
따라 들어갔네
한 바퀴를 돌아가자
달 위에 발자국을
남기자
하나씩 떨어져
멀어진대도
남겨진 발자국을
따라가서
다시 만나자
그곳에서
기다리던
아침이었지만
이대로는
아쉬울 것 같아
전구가 다 꺼져가고 있을 때

망설이다 뒤집은
그림 보면
다들 둘러앉아
모두 한곳을 보고서
달 위를 돌아가는데
한 바퀴를 돌아가자
달 위에 발자국을
남기자
하나씩 떨어져
멀어진대도
남겨진 발자국을
따라가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이제 다 같이
몸 떠 오르네
한 바퀴를 돌아가자
달 위에 발이
닿을 수 없다면
떠오르는 서로를
붙잡고서
한 바퀴를 더 돌자
한 바퀴를 더 돌자
한 바퀴를 돌아가자
달 위에 발이
닿을 수 없다면
떠오르는 서로를
붙잡고서

신서훈 - Ins



- ㄴ -

SUR.L.

셋째 너구리. 최고의 두부상. 숙명여대 카즈하.



“헬로 에브리원 아임 유채”

이름:
yoo 채연

나이(생년월일):
2001년 2+3+1+5-2+1월 2*4+2*10+1일

전공:
화공생명공학과

별명:
유채, 유채채, 유챙 .. 그외 다수

매력포인트:
양큼한 대학원생

MBTI:
INFJ 껌데기에 갇힌 ENTP / TOFU

독자(친구)에게 한마디:
조신애를 거꾸로 말해보세요!
네 맞아요, 아무 말도 아닙니다!
우하하

숙대의 지박령 채연핑.

항상 예쁜 웃음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어 고맙습니다. 기꺼이 먼저 인터뷰에
응해 주어 언니의 발랄하고 귀여운 답변
이 가이드가 되어 좋은 인터뷰를 할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신애가-

- photo -

s n o o p 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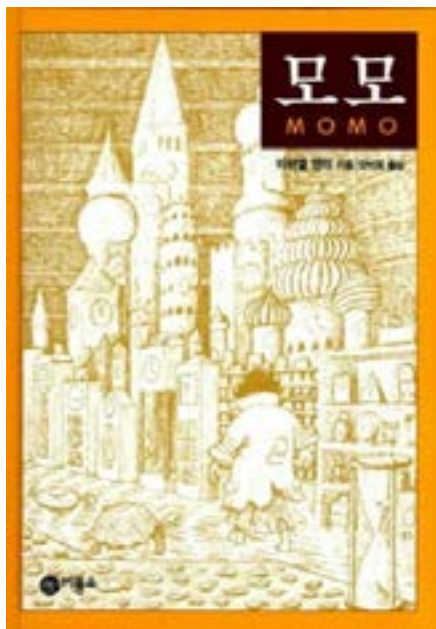


- photo -



안녕하세요 채연씨. 친구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도서가 있으실까요?

미하엘 엔데의 모모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청소년 필독서라 가볍고 쉽게 읽기 좋고 그렇다고 내용이 너무 가볍기만 하지도 않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추천해 주고 싶으신 노래도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pink sweat\$의 i feel good을 또 추천하고 싶네요.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친구들도 들어보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모든 일에 열과 성을 다 하시기로 유명하신데 채연씨에게 이러한 열정의 동기가 되는 일이 있을까요?

‘Luck is what happens when preparation meets opportunity’란 말이 있습니다. 뭔가를 할 때마다 동기부여가 되어주는 문장인데요. 덧붙여서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고 생각하고, 어디서든 배울 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뭐가 됐든 준비의 과정이 될 것이고 기회를 만난다면 행운이 따라올지도 모르겠네요.

I Feel Good

Pink Sweat\$

Living life in color

색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어요

Everything around me looks so beautiful and sweet

내 주변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답고 달콤해 보여요

Heavenly desire

천국 같은 열망

Everything's so bright it's like a brand new movie scene

모든 것이 너무 밝아서 마치 새로운 영화 장면 같아요

All the immersive colors

몰입할 수 있는 모든 색상들

Picture perfect

그림처럼 완벽함

Vibrant games paradise

생동감 넘치고 완벽한 낙원

And the world keeps going 'round

그리고 세상은 계속 돌아가요

I feel good

나는 기분이 좋아요

There's a million stars in the sky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을 때

I feel good

나는 기분이 좋아요

And the sun is shining so bright

태양이 너무 밝게 빛날 때

I feel good

나는 기분이 좋아요

And the world keeps going 'round, going 'round

세상이 계속 돌아갈 때

I feel good

나는 기분이 좋아요

Life is clearer than I've ever seen
인생이 내가 본 것보다 더 명확해요

Feels like I've got magic inside me
내 안에 마법이 있는거 같아요

The world is lighting up, lighting up (ooo)
세상이 밝아지고 있어요, 밝아지고 있어요, 오오

OLED, OLED

All the immersive colors (colors)
모든 몰입할 수 있는 색상들

Picture perfect
그림처럼 완벽한

Vibrant games paradise
생동감 넘치고 완벽한 낙원

And the world keeps going 'round
그리고 세상은 계속 돌아가요

I feel good
나는 기분이 좋아요

And there's a million stars in the sky
하늘 수많은 별들이 있을 때

I feel good
나는 기분이 좋아요

And the sun is shining so bright
태양이 너무 밝게 빛날 때

I feel good
나는 기분이 좋아요

And the world keeps going 'round, going 'round
세상이 계속 돌아갈 때

I feel good
나는 기분이 좋아요

너구리의 태양. 작은 거인. 독일 미녀.

“고양이 이름은 수아.. 아니 우리입니다..”

이름:

김수아

나이:

23

전공:

통계

별명:

좌, 야수

좋아하는 것:

요즘에는 차를 마셔요..

독자(친구)에게 한마디:

신애 친구 많다..

신애야.. 이런거만드니까 너진짜 졸업하는것같네..

문집은 삼행시가 국룰이지..

조심히 가.. 잘 지내..(가지마)

신기하다.. 벌써 이렇게 됐네..

애기야.. 보고싶다..ㅋㅋ

이건실지마..

매력포인트:

고양이 보유.

집 주변에 너구리 나옴.

MBTI:

ENTP

이번 학기 가장 슬픈 일: 미녀가 휴학함
우리 수아만 두고 가려니(아님) 마음이 좋지
않아요. 많이 보고 싶을 겁니다. 아무래도 미녀
는 귀하니까요.
항상 많이 아끼고 사랑해요. 나의 작은 너구리.

Mise au point - Doumea

파리에서 마지막 날에 저녁을 먹는데 이 노래가 나왔어요..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구 숙소에 돌아와서 다같이 이 노래에 춤을 쳤어요..
지금도 우리는 기분이 좋으면 이 노래를 흥얼거려요..
근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신애가 해석해 주세요



Mise au point

Doumea

그냥 설명

Juste une mise au point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에
Sur les plus belles images de ma vie

너무 창백한 사랑 이야기 사진 위에
Sur les clichés trop pâles d'une love-story

알리바이가 없는 여자의 심리상태에 대하여
Sur l'état-d'âme d'une femme sans alibi

밤새도록 꿈을 꾸는 사람
Qui rêve toutes ses nuits

그냥 설명

Juste une mise au point

잠깐의 생존 윙크를 위해
Pour un petit clin d'œil de survie
모든 미친 사람들을 위해, 사랑은 아프다
Pour tous les fous, les malades de l'amour

나 같은 낭만주의의 모든 희생자들을 위해
Pour toutes les victimes du romantisme, comme moi

약간의 윙크, 설명

Juste un p'tit clin d'œil, une mise au point

그냥 설명

Juste une mise au point

그냥 설명

Juste une mise au point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에
Sur les plus belles images de ma vie

너무 창백한 사랑 이야기 사진 위에
Sur les clichés trop pâles d'une love-story

알리바이가 없는 여자의 심리상태에 대하여
Sur l'état-d'âme d'une femme sans alibi

밤새도록 꿈을 꾸는 사람
Qui rêve toute ses nuits

그냥 설명
Juste une mise au point

잠간의 생존 윙크를 위해
Pour un petit clin d'œil de survie

모든 미친 사람들, 사랑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
Pour tous les fous, les malades de l'amour,

나 같은 낭만주의의 모든 희생자들을 위해,
Pour toutes les victimes du romantisme, comme moi,

약간의 윙크, 설명입니다.
Juste un p'tit clin d'œil, une mise au point.

그냥 설명
Juste une mise au point

그냥 설명
Juste une mise au point

작은 생존의 윙크를 위해
Pour un petit clin d'œil de survie

모든 미친 사람들을 위해, 사랑은 아프다
Pour tous les fous, les malades de l'amour

나 같은 낭만주의의 모든 희생자들을 위해
Pour toutes les victimes du romantisme, comme moi

약간의 윙크, 설명
Juste un p'tit clin d'œil, une mise au point

그냥 설명
Juste une mise au point

막내 너구리.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개그맨.

“오 대박”

이름:

정세윤

나이:

20020727

전공:

사회심리학과

별명:

썸썸

매력포인트:

새침도도하지만 귀엽기도하고
못하는 게 딱히 없는 찌는 매력 보유

MBTI:

ISTP

취미:

스노우보드, 뜨개질

좋아하는 것:

샤브샤브, 소고기, 회, 꽃, 날씨 좋은 날 안양천에서 자전거타기, 멍때리면서 버스타기, 예쁜 옷 입고 데이트하기 등등등 ...

독자(친구)에게 한마디:

당신들을 만난 건 내 행운이야 ~~~

내 대학생활을 채워줘서 고마워 사회 나가서도 함께하자 ~~







1) 영화 : 어바웃타임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현재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내 삶을 사랑하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영화.



2) 노래 : 당장 널 만나러 가지 않으면(이찬혁)

사랑에 빠진 사람의 사랑스러운 감정을 잘 나타낸 가사와 찰떡으로 어울리는 귀여운 멜로디 댄츠 굿

3) 명언

(..? 기독교는 아니지만 좋아하는 기도..?라 해야하나)

신이시여 저를 평온하게 하셔서 / 바꿀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게 하시고 /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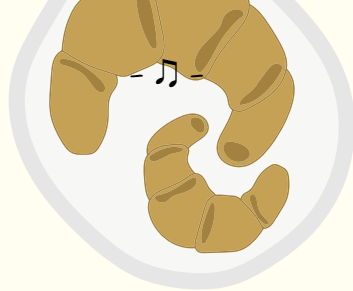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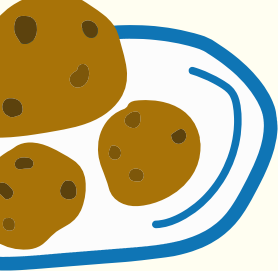
좋아하는 이유는 결국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거나 우울한 시기가 올 때 보면 도움이 된다.

- ♪ -

당장 널 만나러 가지 않으면

이찬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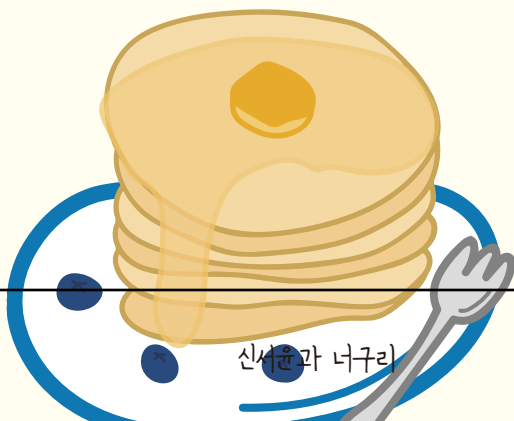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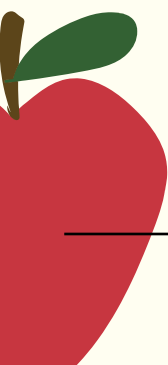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It's you
시리얼에 우유를
부을 때조차 It's you
창문을 열었는데
뭉게뭉게 구름이
변하더니 네 얼굴이 보여
당장 널 만나러 가지 않으면
오늘 하루가 손톱만큼도 의미 없어
네게 달려가지 않으면
오늘 내 몸이 제 역할을 한 적이 없어
이런 계획은 없었는데 Yeah
우선순위를 정하고 싶어
다른 것을 다 제쳐두더라도
널 보고 싶어 (I miss you)



옷장을 열었는데
멋진 가죽 재킷이
날 껴안고 속삭이네

Let's go

당장 널 만나러 가지 않으면
오늘 하루가 손톱만큼도 의미 없어
네게 달려가지 않으면
오늘 내 몸이 제 역할을 한 적이 없어
너에게 전화를 걸어 받아줘
바빠도 잠시만 시간을 내줘
해야 할 말이 있어 나 지금
당장 널 만나러 가지 않으면
오늘 하루가 손톱만큼도 의미 없어
네게 달려가지 않으면
오늘 내 몸이 제 역할을 한 적이 없어



02

제주 솔로





너의 슬픔은 나의 기쁨

친구의 이별을 웃음으로 승화하여
제주도 여행을 떠난 이진환, 강상
원, 최은비, 조신애.

그들의 관계성에 대해 알아보자.
뻘하게도 대학연합보드 동아리
KUSBF를 통해 평창에서 만난 여
행이 가고 싶을 뿐인 네 사람이다.

서로의 첫인상에 대해 한마디 부탁
드립니다.

○○양: 전남친 친구. 무섭다.

△△군: 친구 전여친. 이상한 말을
한다.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이들이 친해
지고, 평창 눈밭에서 얼굴 딱 한 번
본 은비양과 상원군이 8개월 만에
제주의 바다에서 만나게 되는 개연
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도파민
모임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커플여행이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지만, 죽어
도 아니며 오히려 서로 소개팅을
추천해 주는 사이라고 한다. 도파
민 모임답게 소개팅을 추천해 준
이후 멀리서 소개팅을 훔쳐봤다는
소문도 있으나 이에 대한 사실 확
인은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KUSBF 그트 대장, 인형뽑기 장인, 막이래

“곧 졸업장을 받게 되는 유인원입니다.”

이름:

강상원

나이:

반오십 (2000년 5월 6일)

전공:

건축학과, 겨울잠 자기,
교수님 월급주기 등

별명:

오물풍선, 디그다, 개불, 쥐새끼

MBTI:

E(I)STP(J)

취미:

겨울에 스키장 3달살이 하기
락페와 인디밴드 콘서트 가기

좋아하는 것:

새벽에 혼자 영화보러가기
김다미, 서현진, 금새록, 설인아

독자(친구)에게 한마디:

조신애랑 친구 왜 하는거예요?

착한 상원핑.

막이래에서 차나핑을 담당해줘서
고마워요. 자주 당일약속을 잡고
내향인들 그집어 내어준 덕분에
즐겁게 놀다 갑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작가 -

매력포인트:

김우빈 뺨치는 187의 장신 소유자
벼락치기로 고려대 합격한 뛰어난 두뇌
윤성빈을 연상케하는 운동신경
스키장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스노우보드 실력
피아노, 기타, 드럼, 리코더, 캐스터네츠
등 각종 악기 자유자재로 연주 가능
정해인도 울고갈 매력덩어리 그 자체



- photo -



1) 드라마

그해우리는 : 김다미랑 최우식의 뽀짝뽀짝한 연애가 187 거구의 남성조차 설레서 몸부림치게 만듦. 이상형을 국연수(김다미) 그 자체로 만들어버림. 아 최우식 개부럽다.

2) 노래

Oddities : The poles(더 폴스) 노래중에 가장 즐겨듣는 노래로 김다니엘의 보컬과 세션 연주가 너무 잘 어우러짐.

같은 김다니엘이 들어가 있는 Wave to earth는 단독 콘서트 열어주면서, The poles는 안열어줘서 날 안달나도록 기다리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가산점 부여함.

3) 노래

각자의 밤 : 나상현씨밴드의 대표곡 중 하나로, 인디밴드를 즐겨듣게 된 시작점이 된 곡.

단순히 멜로디가 좋은걸 넘어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좋음. 과제하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 집가면서 듣기 정말 좋은 곡



- ♪ -

Oddities

The Poles

우린 심야를 탐해 태양을 죽이러 갔네
당연히 몸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탔대
그래도 포기를 못하나
심장에 불이 올랐나
오기를 부리는 모습이 멍청하기 짝이 없다나
But ooh, I hate the light He's blinded me
Now I miss the light
고장난 엔진소리에
분투하는 우리들은 야,
누가 뭐라 하던지 시끄러워
귀가 망가진지 오래야
그래서 포기를 못하나
심장에 불이 올랐나
오기를 부리는 모습이 멍청하기 짝이 없다나
But ooh ah-, I hate the light
ooh ah-, He's blinded me
Oh, Now I'm in dead of night

- ㄴ -

Anomalies in the oddity space

평창소녀들의 아빠, 인하대 강설(强雪) 대장

“섹시하고 치명적인”

이름:

이진환

나이:

2000-06-23

전공:

컴퓨터공학과

별명:

아빠

매력포인트:

착하다? 키 좀 큼? 몰라

MBTI:

estj

취미:

게임 스노우보드 농구

좋아하는 것:

여자

독자(친구)에게 한마디:

정신 좀 차리자.

	아빠 안녕.
	요즘 바쁘다고 얼굴 보기 힘
	드네요. 작년 겨울엔 거의 같이
	살았는데 이번 겨울에는 제일 얼굴
	보기 힘든 사람 중 한 명이겠어.
	아빠 덕분에 도파민으로 가득
	한 23/24를 보내고 갑니다.
	2024 겨울에. 딸랑구가.

- photo -





오타쿠 하트 in 제주



- photo -



Shine Your Star

미스터 션샤인 OST

오존(03ohn)

What got this fire burning
무엇이 이 불을 타게 했을까요
Lit up my heart so bright
내 심장을 너무 밝게 켜네요

Should've been a little careful from the start yeah
처음부터 조심했어야 했는데

I smile in my heart when I see you
그대를 보면 나는 마음속으로 웃죠

Gotta say it's way too hard
정말 너무 어려운걸요

To hide the truth
진실을 숨기는 것이

Can I call your name inside my dreams
꿈속에서 그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나요

When I close my eyes that's when we're free
눈을 감았을 때 그때 우리는 자유롭죠

Can I be your star
그대의 별이 될 수 있나요

Be your light
그대의 빛이 될 수 있나요

Be your everything
그대의 모든 게 될 수 있나요

Every night I'm falling
매일 밤 나는 빠지죠

in a deeper longing for you
더 깊이, 그대를 그리는 마음속으로

Can I be your star
그대의 별이 될 수 있나요

Be your light
그대의 빛이 될 수 있나요

Shine your lonely night
그대의 외로운 밤을 밝혀주고 싶어요

I will guide your dark
그대의 어둠고

and lonely night
외로운 밤을 안내해줄게요

I know that it's impossible to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hold you close in my arms
그대를 내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게

be true
그리고 솔직할 수 있다는 게

Tell you that you're in my heart
그대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말하고

you make me smile
그대가 나를 웃게 만든다는 게

But fate stands in between us
하지만 운명이 우리 사이에 서있죠

Our end and our beginning
우리의 시작과 끝

Like frost in an endless storm
마치 끝없는 폭풍 속에 서리처럼

Beautiful but cold

아름답고 차갑죠

Can I call your name outside my dreams

그대의 이름을 꿈밖에서 부를 수 있나요

When I close my eyes that's when we're free

눈을 감았을 때, 그때 우리는 자유롭죠

Can I be your star

그대의 별이 될 수 있나요

Be your light

그대의 빛이 될 수 있나요

Be your everything

그대의 모든 게 될 수 있나요

Every night I'm falling

매일 밤 나는 빠지죠

in a deeper longing for you

더 깊이, 그대를 그리는 마음속으로

Can I be your star

그대의 별이 될 수 있나요

Be your light

그대의 빛이 될 수 있나요

Shine your lonely night

그대의 외로운 밤을 밝혀주고 싶어요

I will guide your dark

그대의 어둠고

and lonely night

외로운 밤을 안내 해줄게요

In a world without distortion

왜곡 없는 세상에서

In a land that only shines
오직 빛나기만 하는 세상에서
There, I could be myself, there we could begin without pain
그곳에서는 내가 나일 수 있고, 우리는 아픔 없는 시작을 할 수 있죠

Can I be your star
그대의 별이 될 수 있나요

Be your light
그대의 빛이 될 수 있나요

Be your everything
그대의 모든 게 될 수 있나요

Every night I'm falling
매일 밤 나는 빠지죠

in a deeper longing for you
더 깊이, 그대를 그리는 마음속으로

Can I be your star
그대의 별이 될 수 있나요

Be your light
그대의 빛이 될 수 있나요

Shine your lonely night
그대의 외로운 밤을 밝혀주고 싶어요

I will guide your dark
그대의 어둠고

and lonely night
외로운 밤을 안내 해줄게요

In a world without distortion
왜곡 없는 세상에서

In a land that only shines
오직 빛나기만 하는 세상에서

There, I could be myself
그곳에서는 내가 나일 수 있게

03

이예황 걸즈





이예황에 대해 처음 들은 사람들은 모두 묻는다. 이예황이 뭐냐고.

이예황은 스노우보드를 타며 만난 숙명여대, 이화여대, 경찰대의 친한 02년생들 8명의 모임이다. 모임명이 생기게 된 배경으로는 그저 블로그 쓰는데 이름을 하나씩 쓰기 귀찮았던 누군가 제안했다는 설이 있다.

이예황이란 ‘이대 예지 황윤지’의 줄임말로써 익명의 의견과 투표를 통하여 정해진 이름이다.

이러한 모임명은 이화여대의 황윤지라는 학생이 있더라는 그룹의 예지를 닮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

다. 숙경이가 MT에서 명랑한 연하남이 그녀에게 한 말 혹은 그러한 사랑이 시초가 되었다고 알려진다.

이예황 중 여학생들끼리 자주 모여 이를 편의상 이예황 걸즈라고 부른다. 정작 이예황의 황윤지양은 이러한 별명을 쑥스러워하여 이예황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한다고 전해진다.

때문에 줄임말인 eyh를 사용하는데 Expanding Your Horizons라는 의미도 있다고 하니 오히려 좋다는 의견을 더해본다.

이예황의 정체성, 투슬리스, 휘닉스 며느리감 1위

“보통 분위기메이커와 (언니들에겐)
재간둥이를 맡고 있어요”

이름:

황윤지

나이:

2002.06.03

전공:

화학나노과학과

별명:

호앙, 윤쥬콩쥬, eyh...

MBTI:

ESTJ/ESFJ 반반

사실 4가지다 60퍼센트 안 넘어서
크게 의미가 없어요

취미:

일단은 보드동아리니까 보드타기인데 이번 시즌은 못해서 앞으로도 취미일
지는 모르겠,,,구

좋아하는 것:

요즘은 슈링클스 키링 만드는거에 푹 빠져있는 중입니다 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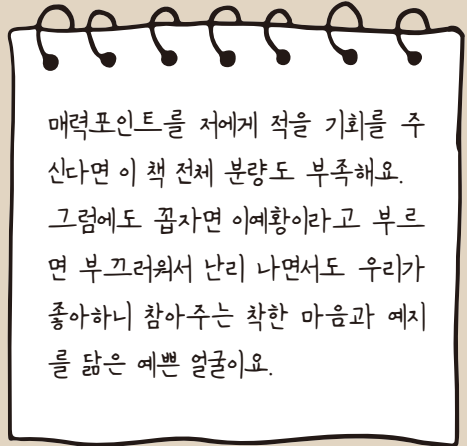
그리고 자주 하진 않지만 항상 하고싶어하는 드럼치기 !! 시간만 되면 계속
배우고 싶어요 배울수록 재밌어져

독자(친구)에게 한마디:

신애랑 오래오래 예쁜 인연 이어가세요:) (일단 나부터!)

매력포인트:

신애가 생각나는걸로 적어주겠지





- photo -



안녕하세요, 윤지씨.

이예황의 그 자체인 윤지씨가 추천하는 노래가 궁금합니다..!

요즘 JPOP을 듣고 있는데
추천할 곡이 너무너무 많지만
아이몽(あいみょん)-너는 록을 듣지 않아(君はロックを聴かない),
SPYAIR-Orange 추천할래요.

아이몽의 ‘너는 록을 듣지 않아’를 추천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는 록을 듣지 않아는 처음 나오는 전주 부분 일렉라인이 너무 좋아서 세상 모든 사람이 꼭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 듣는 순간 절대 ‘한 번만’ 듣진 못하겠지만)

하이큐!! 덕후로도 유명하신 우리 윤지씨. 편집자와 극장판을 보러 다녀오셨다는 이야기도 익히 들었습니다. 많은 하이큐!!의 노래들 중 Orange를 추천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Orange를 추천하는 이유는
전주 밴드 사운드 + 희망찬데 동기 부여도 해주는 가사라서!
저는 노래 들을 때 가사보다 멜로

디가 좋은게 더 중요해서 노래 들으면서 가사에 집중을 안하는데 Orange는 일본어 공부할 겸 가사 해석 찾아보다가 내용까지 좋아서 더 자주 듣게 됐어요.

특히 좋아하는 부분은
‘틀려도 괜찮아 무서워하지마
넌 그저 너대로면 돼’

이렇게 쓰고 보니까 밴드사운드랑
전주에 미친 사람 같네요...ㅎ
아무튼 다들 밴드 음악을 사랑하세요♥

너는 록을 듣지 않아(君はロックを聴かない)

아이몽(あいみよん)

少し寂しそうな君に
조금 쓸쓸해 보이는 너에게

こんな歌を聴かせよう
이런 노래를 들려줄게

手を叩く合図
손뼉을 치는 신호

雑なサプライズ
엉성한 서프라이즈

僕なりの精一杯
내 나름의 최선

埃まみれドーナツ盤には
먼지투성이 도너츠판에선

あの日の夢が踊る
그날의 꿈이 춤을 춰

真面目に針を落とす
진지하게 바늘을 내려놔

息を止めすぎたぜ
숨을 너무 참았네

さあ腰を下ろしてよ
자, 앉아 봐

フツフツと鳴り出す青春の音
마구마구 울리기 시작하는 청춘의 소리

乾いたメロディで踊ろうよ
메마른 멜로디로 춤을 추자

君はロックなんか聴かないと思いながら
너는 록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少しでも僕に近づいてほしくて
조금이나마 내게 다가와 주길 바라서

록크なんか聴かないと思うけれども
록 같은 건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僕はこんな歌であんな歌で
나는 이런 노래로 저런 노래로

恋を乗り越えてきた
사랑을 헤쳐 왔어

僕の心臓のBPMは
내 심장의 BPM은

190になったぞ
190이 됐어

君は気づくのかい？
넌 눈치를 찰 거야?

なぜ今笑うんだい？
왜 지금 웃는 건데?

嘘みたいに泳ぐ目
거짓말같이 피하는 눈

ダラダラと流れる青春の音
줄줄 흐르는 청춘의 소리

乾いたメロディは止まないぜ
메마른 멜로디는 멈추지 않아

君は록크なんか聴かないと思いながら
너는 록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あと少し僕に近づいてほしくて
조금만 더 내게 다가왔으면 해서

록크なんか聴かないと思うけれども
록 같은 건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僕はこんな歌であんな歌で
난 이런 노래로 저런 노래로

恋に焦がれてきたんだ
사랑에 애타 온 거야

君がロックなんか聴かないこと知ってるけど
네가 록을 듣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지만

恋人のように寄り添ってほしくて
연인처럼 꼭 붙어 있고 싶어서

ロックなんか聴かないと思うけれども
록 같은 건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僕はこんな歌であんな歌で
난 이런 노래로 저런 노래로

また胸が痛いんだ
다시 가슴이 아파

君はロックなんか聴かないと思いながら
너는 록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少しでも僕に近A
조금이라도 내게 다가왔으면 해서

ロックなんか聴かないと思うけれども
록 같은 거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僕はこんな歌であんな歌で
난 이런 노래로 저런 노래로

恋を乗り越えてきた
사랑을 헤쳐 왔어.

- ♪ -



- 音楽

Orange

SPYAIR

さよなら は言わない 約束もない
안녕 은 말하지 않아 약속도 안 할거야

また会えるから 僕は
우리들은 다시 만날 수 있을테니까

オレンジを少し かじる地平線
오렌지를 조금 갈아 먹은 지평선

甘酸っぱい光 眩しくて
시름달달한 빛이 눈 부셔

すべり出す汗と 響いた声
흘러내리는 땀과 울려퍼지는 목소리

叩き合えた肩 笑いあって 泣いて
서로 두들겨준 어깨 함께 웃고 울며

明日へ向かう オレンジ色の空へ
내일로 향하는 오렌지 색 하늘에

羽ばたいていく
날개짓해 가

あと1秒だけ もう1秒だけ
1초만 더 1초만 더

なんて 惜しむような 今が
라며 아쉬워하는 지금이

きっと
 분명



- ♪ -

小さな背中に 大きな夢を乗せて
작은 등에 커다란 꿈을 싣고

ここまで来たんだよ
여기까지 왔어

思い通りの未来だけじゃないけど
생각했던거 만큼의 미래만은 아니지만

楽しかったよね 全てが
그 모든 것이 즐거웠었지

息を切らし ただ 走り続け
숨이 차오르게 그저 계속 달려

追いかけてたのは 胸の熱さだろう
쫓아간 것은 가슴 속 뜨거움이겠지

もう一回のない そんな瞬間が
한 번 더가 없는 그런 순간이

ずっと 繋がってくように
계속 이어져가듯이

何を描こうか? 何をしようか?
무엇을 그려갈까? 무엇을 해나갈까?

なんて 想像してみるけど
라며 상상해보지만

きっと
분명

きっと
분명

確かな事だって いつか分かるから
분명한 것 역시 언젠간 알게 될테니

間違って良いよ 恐がらないで
틀리더라도 괜찮아 두려워 하지마

君は 君でいい oh
너는 너대로 괜찮아 oh

少し 苦い オレンジのよう
조금 씹쓸한 오렌지 같이

後に残った切なさ
뒤에 남은 서글픔

あと1秒だけ もう1秒だけ
1초만 더 1초만 더

なんて 惜しみながら行くよ
라며 아쉬워하며 나아갈게

限られた時間がいつか
끝이 정해진 시간이 언젠가

ふいに 恋しくなっても
불연듯 그리워지더라도

立ち止まらないで 振り返らないで
멈춰서지 말아줘 뒤돌아 보지 말아줘

君は進んで行けばいいんだよ
너는 나아가면 그걸로 된거야

きっと
분명

きっと
분명

下商店



소주병뚜껑 아티스트, 취하지 않는 여성

“안녕하세요 신애 친구예요”

이름:

김민경

나이:

02.10.01

전공:

디자인학부

별명:

뽀로로

매력포인트:

매력포인트..는 밍송맹송한 매력?

특이점이 없어요 그냥 없어요.

MBTI:

intj

취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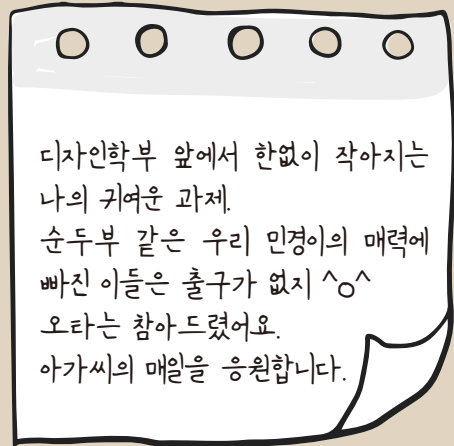
취미는 빈티지 디카로 사진 찍고 다니기!! 빈티지 디카 중고로 올라오는 매물 구경하기, 작레 찾아보기 ㅎㅎ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은 잠자기. 따뜻한 이불 안에서 푹 자는게 좋아요

독자(친구)에게 한마디:

숙대 언니들 다 너무 귀엽고 이예황 걸즈 사랑해 ㅎㅎ



- photo -



- photo -



안녕하세요, 민경씨.

혹시 이 글을 읽는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 추천해주고 싶으신 노래가 있으실까요?

작업할 때 듣는 노래랑 평소 듣는 노래랑 조금 다른데 작업할 땐 한 곡만 주구장창 노동요로 들어요. 평소에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flo 가장 많이 들은 곡 순서는 백아의 첫사랑, 우효 청춘이네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가을 탕나봐요

ㅎㅎ.. 좀 잔잔한 노래 좋아하기도 하고 귀에 부담이 안 가는 노래 좋아해요.

그렇다면 작업하실 때는 어떤 곡을 주로 들으시나요?

작업할 때 주구장창 들은 것은 illenium의 crashing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떠오르는 상황이 있는데 ㅋ 작업 정말 열심히 하게 됩니다 ㅋ스ㅋ.. 작업할 땐 illenium 노래들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미대생의 작품 추천도 궁금합니다!

작품은 모르겠지만 지금 떠오르는 작가가 있는데 처음으로 팔로우한 작가예요. @zhestkov라는 미디어아트 작가가 있는데 처음에 보고 반했어요. 이때 처음으로 미디어아트에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 ♪ -

첫사랑

백아

알아 내 맘에 조용히
문을 두드리면
눈에 뿌옇게 고여버린
널 흘려보내야 해
기억은 저 빠른
시곱바늘을 놓쳐
처음 널 알아본
마지막에 웃어보일거야
사선을 트는 저 빛은
날 향해 불을 피우고
재가 되지 않으려
난 돌아서지만
빈 갈피에 차오른
우리라는 색은
완벽할 필요 없이
아름다운 영화였어
우리가 머문 밤 사이
피어버린 심장소리에

- ♪ -

밤 하늘의 별을 이어
널 그리는 걸
이 시간의 난
너와의 시간을 물 들이고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지나봐
저 별도 달도 사랑한
우리의 파란 하늘은
손 달을 필요 없이 부서진
은하수인것 같아
우리가 머문 밤 사이
피어버린 심장소리에
밤 하늘의 별을 이어
널 그리는 걸
이 시간의 난
너와의 시간을 물 들이고
첫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지나봐
이 시간의 난
첫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워지나봐

04

문정 치킴이

순원관
Sungwon Building



문정 지킴이들은 사랑스러운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 21학번이다. 다들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국 모두 전공을 살리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다. 코로나 학번임에도 인스타그램 디엠이라는 다소 MZ스러운 방법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되었다. 한 명은 용인에서 통학을, 한 명은 매일 도서관에서 근무를,

한 명은 남양주에서 통학을 하는 탓에 얼굴 보기도 힘들지만 든든하고 사랑하는 동기들이다.

그녀들은 무사히 졸업하는 것 말고는 바라는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중 둘이나 대학원에 가겠다 선언하며 어찌면 바라는 게 저게 다가 아닐 수도 있어 보인다.

명에 제주도민, 베스트 드라이버, (대학원생)

“제주도에서 평생 아무것도 안하고
여유부리고 싶은 졸업생입니다”

이름:

김가현

나이:

2002.05.10

전공:

문헌정보학과

별명:

도토리

매력포인트:

MBTI:

infj

	가현아 졸업 축하해!
	20살에 처음 만났는데 벌써 졸업
	이라니. 부족한 모습을 너무 많
	이 보여줬는데도 먼저 마음 열어
	줘서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
	동기사랑 나라사랑. 멋지게 사회
	구성원이 되어 만납시다. 화이팅!

취미 & 좋아하는 것:

여행, 여유로운 피크닉, 음식, 드라마와 영화, 노래듣기, 산책하기, 단풍, 따뜻한 연말 분위기

독자(친구)에게 한마디:

나의 아주 적은 대학친구들 중 한명 인 소린이에게, 미래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게 난 행복해. 늘 빛나기만 한 미래는 아니지만 너가 있어서 든든하다.

- photo -





1) 노래 - 세븐틴의 사탕 :

너무 많은 것을 감수하는 어른들의
사랑이 아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
로 사랑을 내밀며 사랑을 시작하고
싶은 가사들이 좋음

2) 드라마 - 미스터션샤인 :

모든 대사가 주옥같고 인물들의 서
사를 보며 작가가 그저 감탄스러움



3) 책 - 소년이 온다 :

내 인생 처음 울면서 완독한 책



사탕

세븐틴

우리 사탕 같은 사랑해요
자그만 말 하나에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게요
사랑 같은 건 아마 원래 쓰디쓴 걸까요
나는 싫어요 어찌죠?
어른이 되는 것 만큼
사랑도 힘든 걸요
그러나 그치만 그래도
우리 사탕 같은 사랑해요
자그만 말 하나에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게요
우리 사탕 같은 사랑하며
사르르 녹아질래요? 어때요?
그대 맘을 다 가지고 싶다면 어린 맘인가요
우리 사탕 같은 사랑해요
상처 뿐인 하루라도 한번은 웃을 수 있게요
우리 사탕 같은 사랑하며
사르르 녹아질래요? 어때요?
그대 맘을 다 가지고 싶다면 어린 맘인가요



카페인 못 먹는 중독자, 문정 키크,

“청춘과 낭만을 즐기다 어느덧 4학년이 되어버린,
그러나 아직도 숙대 2캠 지리를 모르는 잃어버린 4년의 대학생.”

이름:

김소린

나이:

2002년 12월 17일

전공:

신애와 같은 자랑스러운 문헌정보학과
4학년입니다!

별명:

수란, 소란, 수린, 소랭, 고린(그냥 오타
인듯...), 수렁, 수링, 수롱롱, 수랭이, 수
룽, 수룩쟁이(???) 놀랍게도 바로 어제
본가 친구들이 부른 이름들

취미:

굉장히 많은데 일단 스포츠(축구, 농구, 탁구, 볼링 등), 헬스, 피아노, 게임 등을 좋아한다. 몸 쓰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 4년 간 유일하게 가입했던 학교 동아리도 스노홀릭(스노보드&스케이트보드 동아리) 이었다. 특히 축구든 농구든 헬스든, 숨이 찰 때까지 달릴 때만큼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아 좋다. 평소 잡생각과 잔걱정을 달고 사는 편이기 때문이다. 학교 갔다오면 하루종일 게임만 한다. 게임도 점수 올리는 게임만 즐기는 편이다. 웬지 시간을 썼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으면 시간낭비 같아서 다른 게임은 안 한다.

좋아하는 것:

이런 취미와 대비되게 의외로 감성적인 면모가 있어서 풍경 사진찍기, 독립서점 방문, 카페 도장깨기 등도 즐긴다. 나름 사진 잘 찍는다고 자부하는 편. 그리고 고양이가 너무 좋은데 고양이가 가득하다는 신애의 본가를 내년에는 꼭 방문하고 말 것이다.

매력포인트: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무섭다고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다. 사실 점심 뭐 먹을지 고민하고 있었던 것 뿐인데... 썬 인상에 보기보다 감성적이고 낭만파이다. 하루에 커피와 디저트 없이 못 사는 사람으로, 어느 지역이든 웬만하면 카페와 서점에 출몰한다. 매력포인트... 의리가 많이 있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MBTI:

ISTJ. 100번 검사해도 ISTJ. 인간 ISTJ 그 자체. (딱 한번 ENFP 나온 적 있는데 질문 오류였음...)

독자(친구)에게 한마디:

사랑하는 신애야, 가현아, 그리고 자랑스러운 문헌정보학과 21 동기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마음껏 꿈을 펼치길,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인연으로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 photo -



1) 에이티즈- 야간비행:

지치고 힘든 청춘들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노래입니다. 멜로디도 좋지만 가사를 꼭 다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며 울기도, 웃기도, 위로를 받기도, 앞으로 나아갈 힘을 받기도 했어요. 특히 ‘우린 여기서 지금 모습으로 그대로여도 괜찮아’ 라는 가사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한 마디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꼭 무엇이 되어야 한다면 나는 내가 되기를 바란다는 가사도 방황하는 청춘들이 꼭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2) 로맨스는 별책부록(드라마):

문정인들은 물론이고, 책을 사랑하고 책이 있는 공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드라마입니다. 저는 책을 읽거나 분류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여러 사람들과 책을 만들고, 알리고, 책이 있을 공간을 구성하는 일을 사랑합니다. 그런 제게 큰 울림을 주었던 드라마인데요, 한 출판사에서 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그 속에서 여러 등장인물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특이한 점은 매 회차 에필로그에 출판업 관련 명대사를 담은 이미지 카드가 하나씩 있습니

다. 고등학교 시절 문헌정보학과를 꿈꾸며 그 이미지 카드를 매 회마다 다운받아 방에 붙여놔던 기억이 나네요. OST부터 에필로그, 내용까지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드라마입니다.



야간비행

ATEEZ

아직 난 어린 걸지 몰라
까만 밤하늘을 맴돌아
조급함이 만들어 놓은
난기류는 우릴 비틀어
떨어지네 waterfall
끝이 없는 free fall
거친 바람에
다친 마음에
세상은 내게 추락만을
택하라는 듯
끝없는 어둠만
이 끝에 우린 어디로
어떤 모습으로 무엇이 돼야만 하나
단지 난 겨우 나이기도 벅찬 나인데
듣고 있나요 누군가
그저 안아줄 순 없나
우리는 어디로 어떤 모습으로
무엇이 돼야만 하나
또 난

I wanna be where you at
목적지를 몰라 헤매다 쓰러져
방향을 찾지 못해 방황해 wanderer
날개가 꺾이고 휩쓸려 버려 무서워
지치고 지겨워 내게서 계속 멀어져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두렵긴 해
청춘이란 물음표에서 정답을 찾는 여행
떨어지네 waterfall
끝이 없는 free fall
거친 바람에 다친 마음에
세상은 내게 포기만을
택하라는 듯
끝없는 어둠만
이 끝에 우린 어디로
어떤 모습으로

무엇이 돼야만 하나
단지 난 겨우 나이기도 벅찬 나인데
듣고 있나요 누군가
그저 안아줄 순 없나
우리는 어디로
어떤 모습으로
무엇이 돼야만 하나
또 난

어둠뿐인 세상 속에서
하늘 위를 높이 나는 꿈
저기 보여 빛을 따라가
Help me, I just go
We can all go up
무사히 도착하길 빌어 야간비행
Shine on my own

사람들은 그걸
별이라 부를 테니 그저 빛나면 돼
Passion, Young, Fever
이 끝에 우린 여기서
지금 모습으로
무엇이 돼야 한다면
나는 내가 되기를 바라
너도 같기를

듣고 있나요 누군가
가슴에 새길 이 노래
우리 여기서
지금 모습으로
그대로여도 괜찮아

Tonight
매일 밤
시린 마음 거친 싸움
지친 날
따스한 온기로 안아줘요
매일 밤
시린 바람 거친 파도
지친 날
Still fly, 더 안아줘요

05

인하 α 메일



- group -



인하 α 메일.

KUSBF 인하대 AT.G 소속이었으나 이제는 강설이 되어버린 22, 23, 24 임원진들의 모임이다. 누군가는 그들을 알파 메일이라,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알빠노 메일이라 부른다. 강설에는 이들 외에도 다수의 α 메일들이 존재하여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유쾌하고 재미는 있으나 대화가 다소 매콤하기 때문에 뇌를 비우고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매력 덕분에 숙대 소녀들은 서울과 인천, 평창을 오가며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추억은 가슴에 묻고, 지나간 버스는 미련을 버려

“예 반갑고요”

이름:

최영은

나이:

000513

전공:

연극영화

매력포인트:

최우식

MBTI:

100점

독자(친구)에게 한마디:

외로운사람 연락

01077498168

추천 작품:

stand by me

본인이 직접 작성하신
전공입니다.

인하대 최고의 베이글남.

웃는 모습이 누구보다 매력적인 우리
영은군. 순두부 같은 얼굴에서 어쩔 그
리 다양한 표정이 나오는지. 나중에 떠
올려도 웃음이 나올 거 같아요. 항상
상상도 못한 일들로 웃음을 주어 고
마워요.

ps. 사랑은 기세야. 우리 MS 화이팅.

- photo -





- photo -



인하대 옛지 회장님, 장기연애 순애보, 푸바옹

“안녕하세요 인간자체가 강한 남자 박진우입니다”

이름:

박진우

나이:

2000.09.22

전공:

화학공학과

별명:

인자강

매력포인트:

노는거 좋아합니다

MBTI:

ENTJ

취미:

스노우보드, 축구

좋아하는 것:

술

독자(친구)에게 한마디:

안녕~~

추천 작품:

대현대 왕회장님의 임자 해보긴 해봤어?



사람 좋은 진우오빠.

처음의 멋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의 오빠가 참 좋습니다.

기억 속에 오빠가 회장이라 그런가 제일 철
들어 보이다가도 그냥 푸바오로 보여요.
은비언니 아부지라 항상 믿고 맡깁니다.

항상 건강하고 재밌게 지내셨으면 좋겠습
니다. 아자아자.

- photo -



- photo -



- photo -



AT.G의 마지막 회장, KUSBF 최고 미남, 올라운더

“따뜻한 사람 박재영입니다”

이름:

박재영

나이:

020127

전공:

연극영화학과_이게 아닌가

별명:

쟁이

매력포인트:

차분한 톤과 목소리 아닐까요

MBTI:

ESFJ

취미:

아무래도 스노우보드겠지요

독자(친구)에게 한마디:

대부분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분들이네요. 이 글을 누군가 볼 지 모르겠지만, 한 분이라도 본다면 누군가에게는 나의 의도를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겠지요. 저는 저를 미워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없으면 일부러라도 만들긴 하는데, 항상 스스로 받는게 참 많아도 주는게 없는 사람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렇다고 또 바뀌진 않아요. 나쁜놈이네요. 하지만 내가 참 고마워하고 정을 많이 쏟았다는 걸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인하대 최고의 알파메일//㉠㉠
모임에서 유일했던 동갑, 든든했습
니다. 매번 잘생겼다고 말하지만,
한 번도 진심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
다. 군대 가더니 성격이 순둥해져서
새롭습니다.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요.



- photo -



1) 영화

영화는 아무래도 저를 잘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니 빌뇌브 감독 작품들을 추천합니다. 메인 스토리가 있지만 결국 주제는 사람과 사람의 유대 관계가 우선적으로 보여지는 작품들이에요. 거기에 뻘러스 최근 SF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서 더욱 좋아한답니다.

3) 노래

마지막으로 노래는 이정 - 순정을 추천드립니다. 따뜻한 노래더군요.



2) 책

책,, 근래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요, 정말 꽤나 다양하게 읽었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책이 정말 많지만 독자층을 고려했을 때 히가시노 게이고의 ‘히가시노 게이고의 무한도전’ ‘화이트 러시’ ‘연애의 행방’ 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히가시노 게이고는 지독한 스노우보드 광이었던군요. 앞서 서술한 세 권의 책은 모두 스노우보드와 관련된 소설들입니다. 정말 깊이 빠져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렇게 추천했는데 아무도 읽는 사람이 없으면 서운할 정도랍니다.



★건반윤☆, ENFP, 강설 막둥이

“대머리 깎아라”

이름:

김왕자윤

나이:

아침햇살

전공:

아침햇살

별명:

폭스

매력포인트:

돈을 잘 번드

MBTI:

SEXY

취미:

피아노 치기

독자(친구)에게 한마디:

조 조급한 마음에

신 신발 끈이 풀린 것 같은데 ?

애 얘기야 내가 묶어줄게 ♥

우리 귀여운 윤이.

바보들이 너에게 노잼이라 말하지만,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오게 할 수 있
는데 최고의 개그맨 아닐까?

얼굴 아니어도 충분히 웃기기도 합니다.

우리 막둥이가 다 커서 뿌듯하다.

행복해라 승리자야.

- photo -



- photo -



쇼생크 탈출

요즘 갓생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고 게을러지는 현대인들을 위한 영화.
주인공은 오로지 조그마한 도구 하나로 몇십년에 걸쳐 감옥 벽을 긁어 구멍을
낸 뒤 탈출한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의지’ 를 충전하고 싶은 그대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06

너에게





안녕하세요. 이 책을 기획하고 편집한 조신애입니다. 창작을 한 것이 아니니 작가라고 말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글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스타일과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원본 답변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아 이 책에 작가가 있다면 그건 제가 아니라 여러분일 것입니다. 구성 단계에 있어서는 감성적이고 차분한 분위기를 계획하였으나, 여러분의 답변을 읽으며 많이 웃었고, 이 글을 읽을 여러분도 분명하게 웃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책을 처음 구성할 때에는 그저 시간이 지나고 이때를 돌아보며 그땐 그랬었지 하며 웃고 싶었습니다.

관계란 때론 틀어지기도 혹은 노력하지 않으면 잊히기도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나 좋았던 기억까지 싫어지기도, 싫었던 기억이 잊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진과 글의 도움을 받아 이 모습을 조금이나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좋은 모습만 담아서 이 자체가 왜곡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면 뭐든 좋습니다.

기획하는 단계에는 담고 싶은 것들도 분들도 참 많았는데, 분량상 모두 담지 못해서 아쉬움도 남는 거 같습니다. 처음부터 목표가 여러분을 너무 귀찮게 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하다 보니 욕심도 생기고 이것저것 추가돼서 너무 귀찮게 한 건 아닌지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한 명 한 명의 답이 너무 재밌었고 소중했습니다. 사진을 고르면서 옛 생각에 웃음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청춘을 담은 책이 완성된 거 같습니다. 대학교 문집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닉값 천재 조신한 애, 고속 낙엽, 고양이 좋아

“안녕, 나야 조신애”

이름:

조신애

나이:

2002.07.04

전공:

문헌정보학과

별명:

오리, 예의 바른 고양이

매력포인트:

예쁜 얼굴?}_< ★☆

귀여운 생존본능?!

MBTI:

INFJ

취미:

스노우보드(라기엔 그대들이 있어서 그냥 간 거였어요)

좋아하는 것:

게임. 압도적입니다. 재미없는 걸 좋아합니다.

고양이 최고!!!!

독자(친구)에게 한마디:

위에서 많이 했지만, 사랑해요. 이 코너는 원래 읽으며 본인에게 보낸 쪽지를 찾도록 하려고 만들었는데, 다들 쑥스럽게 적어서 곤란했어요.



- photo -



- photo -



1) 영화 : 노트북

여러 인물들의 시점에서 작품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혼자 봤을 때는 몰랐는데, 영화관에서 보고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각적으로도 너무 예뻐서 꼭 한 번 봐보시길 추천합니다.



2) 노래 : peder elias

주로 외국 노래를 많이 듣는데, 그 중에서도 peder elias라는 가수를 좋아합니다. 노래도 잘 부르고 직접 작사 작곡에도 참여하는데 가사들이 따뜻하고 좋아요. 그리고 잘 생겼어요. 오늘 사진을 올렸길래 스리슬쩍 첨부해 보니다.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When I'm Still Getting Over You (Feat. Paige)입니다.

오늘 추천하는 노래는 Back in the Game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멀리 있어도 우리가 항상 옆에 있을게요.

3) 명언

딱히 좋아하는 명언이 없습니다. 이 책을 만들기 시작할 때 즈음에 괴테의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라는 말이 와닿아 책의 제일 앞에 적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특별하니 원하는 곳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Back in the Game

peder elias

oh I can't stay sober
Cause on both of my shoulders
There's a devil that I
can't get out of my mind
and i'm falling over
Hard not to listen
hard to keep him at distance
do you seriously
think that anybody
really cares what you're thinking
no
and i've really tried to
get back on the horse too
but slipping every time until you
now i'm back in the game
yeah you lift me up
show me i'm enough
and i wanna thank you
i'm back in the game
you brought back my smile
it's been a while
i wanna thank you
im back in the game
you share all your secrets
how to keep them at distance
At the end of the day
No matter what they say
your good enough

and i've really tried to
get back on the horse too
amazing what a real friend can do
now i'm back in the game
yeah you lift me up
show me i'm enough
and i wanna thank you
i'm back in the game
you brought back my smile
it's been a while
i wanna thank you
don't you worry
i'm by your side
that's what you told me
and now i'm alright
now i'm back in the game
yeah you lift me up
show me i'm enough
and i wanna thank you
i'm back in the game
you brought back my smile
it's been a while
i wanna thank you
im back in the game
i've been gone for too long
i've been feeling all wrong
i've been sad and alone
but now i'm back in the game
i've been gone for too long
i've been feeling all wrong
i've been sad and alone
but now i'm back in the game

너에게

초판 발행 | 2024년 12월 16일

지은이 | 조신애

펴낸곳 | 나일(娜日)

출판등록 | 2024년 12월 16일(제2024-020704호)

이메일 | ps-hyeon@naver.com

SNS | insta @a_bonny_day

* 저자와 출판사 허락 없이 내용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ISBN | 979-11-1437-922-5 02740

정가 | 38,000원

내 청춘을 채워준
모든 행복은
네 덕분이었어

정가 | 38,000원



ISBN 979-11-1437-922-5 02740

